



■ 학생부종합전형 개선안 발표 기자회견 예고보도(2016.04.22.)

## 4. 28(목), 학생부종합전형 개선안 발표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최근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된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의 실태를 진단하고 개선안을 찾기 위해 두 차례의 긴급 토론회를 진행함.
- ▲ 1차 토론회(4월 7일)를 통해 현재 학종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진단하였으며 2차 토론회(4월 20일)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안을 논의하였음.
- ▲ 두 차례의 토론회와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모아진 학종의 개선방안이 제도적으로 시급히 반영되어 사회적 혼란을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4월 28일(목) 10시 30분, 본 단체 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임.

최근 언론을 통해 대입전형에서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학종이 교육 양극화를 부추기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대두되었습니다. 사교육걱정은 이와 관련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한 후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두 차례의 긴급 토론회를 진행했고 각계 각층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현재 학종이 지닌 문제점을 진단하고 가야할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고사를 전형 요소에 포함하는 등 무늬만 학종인 전형을 운영하는 일부 상위권 대학으로 인해 학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만들어내고 있는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시급히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물론 이와같이 무늬만 학종

인 가짜 학종을 바로잡는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현재 학종 그 자체가 갖는 문제점도 적지 않다는 분석을 하였습니다. 즉 전형 요소 중 비교과 영역에서 교육 불평등과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하는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하여 이를 단계적으로 도려내는 수순을 통해 학교 교육의 본질인 수업과 평가를 혁신시켜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토론 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의견이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였고, 학종의 단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개선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제시하는 개선안은 학교 교육 정상화를 통한 수험생의 학습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적인 입시 문화를 정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판단합니다.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행사명 : 학생부종합전형 개선안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4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

2016. 04. 22.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정책2국장 구본창(02-797-4044/내선번호 501)